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저는 결혼 2년차의 주부입니다. 지금은 신랑과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시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걱정입니다. 태고종으로 소속돼 있는 절이라고 하는데, 일반 가정집에다 법당을 차리고 집 앞에는 대나무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무속인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결혼 전에 재미삼아 사주카페에서 점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남편보다 집안이 먼저 보라고 하더군요. 그때 왜 무속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인지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원지 제 아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걱정입니다.

A 시어머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걱정이 되시

라는 것은 스님들과 도량의 기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런 좋은 절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Q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하고 상경례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것이 너무 많이 쌓여 밤에 술을 먹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부모님도 다 계셨는데 제가 술에 취해 그만 못 알아 봄과 그냥 남자친구 방에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남자친구 집에서 저랑 헤어지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그날 일을 굉장히 노여워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도 부모님께서 완강히 나오시니 어쩔 도리가 없으며 헤어지자고 하네요. 한번도 실수를 해본 적이 없

시어머님이 다니는 태고종 사찰이 만신집 같아요
태고종 사찰에 대한 편견 버리고 대화하세요

나 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무속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는지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특별한 계기가 있었으면 틀라도 아무 이유 없이 그랬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소속이 태고종이라 하셨는데, 태고종은 조계종 스님들과 달리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조계종과 달리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고종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절들은 좋은 곳에 잘 지어진 도량입니다. 하지만 도심의 절은 가정집 같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집 같은 곳이라 해서 무조건 무속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출가에 대해 나름 사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혹시 시어머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직접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나무에 대한 의문점도 직접 물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말고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 의문을 풀어보세요.

혹시 내담자의 기대와 어긋난 대답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담자께서는 나름대로의 종교생활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큰절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큰절이

었는데 그 날 왜 제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용서 받고 다시 시작하고 싶는데, 어떻게 마음을 풀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용기도 나질 않습니다. 워낙 대쪽 같은 분들이시라 저를 다시 받아주시지 모르겠습니다.

A 지금 젊은 세대 입장에서 한 번의 실수였고, 충분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전분을 중요시 하는 어른들의 경우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심정이 공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 배우자인 남자친구와의 관계부터 돈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어른들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비록 순질러진 물이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관계정립을 해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남자친구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들어도 맑은 정신으로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좋은 관계가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팀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일하는 데 나이는 걸림돌 아니에요

행복법당 탐방 금산사 보리수마을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전주 금산사 복지원 보리수마을의 어른들은 더위도 잊은 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곧 다가올 우란분절에 사용될 종이 영가 웃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모두 합쳐 70여 명에 달한다. 모두들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일사분란하게 일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은 이곳에 나와 자신이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아갈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낀다.

보리수마을은 2001년 금산사 복지원(대표이사 원행)이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처음 문을 열었을 당시에는 노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일부 지역 업체에서는 일거리도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 바람에 보리수마을은 한 동안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철저한 품질관리와 재고 관리시스템, 납품기간 이행,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업체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했고, 점점 일거리도 늘어나게 됐다.

보리수마을의 주된 작업은 속옷 전문 제작회사의 관련된 일들이다. 속옷 상자 접기, 수출용 볼펜 조립, 철근 자르기, 유아복 가공, 열쇠 조립 등 다양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초파일 전에는 종이주름등을 만들었으며, 요즘은 사찰에서 생전에 수재나 49재 때 사용하는 종이 영가웃, 예수재 용품 등도 제작하고 있다. 모두들 휴가철이 한산하기만 한 때에, 보리수마을은 쉴 틈이 없다.

보통 전국에 유통되는 속옷상자의 절반은 이곳 보리수마을을 거처간다. 지역에 속옷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은 관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리수마을의 근무는 누가 관리감독을 따로 하거나, 출근시간을 정해 놓고 일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직장과 다름없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 업무를 한다. 어르신들은 보통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한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받는 수입은 개인당 차이가 있지만, 보통 1달에 20~30만원 수준이다. 최고 80여 만원까



전국에 유통되는 속옷상자의 절반 이상은 보리수마을을 거친다. 어르신들이 속옷상자 접기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전국 유통 속옷상자 절반 생산 한달 20~80만원 소득 전국 상위 노인 일거리사업장

지 수입을 받는 분도 계시다.

일반 젊은 사람들의 수입에 비한다면 적은 돈이지만, 어르신들은 자신의 용돈을 벌어 쓸 수 있고, 또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만족해한다.

보리수마을에서 일하는 전체 어르신들의 연간 수입은 1억5000여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전주시에 7개 노인 일거리사업장이 있지만 보리수마을은 그곳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수입을 가져간다.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한정임(전주시 진북동·80) 할머니는 "친구들을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정보도 얻으며 즐겁게 지낼 수 있으니 정말 좋다"며 "부지런히 일을 하면 치매예방도 되고, 마음과 몸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고 반문한다.

벌은 돈은 어디에 쓰느냐는 질문에 한정임 할머니는 "이플 땐 약도 사 먹고, 대부분 손자들 용돈으로 쓴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아들내외가 나를 모시고 살겠다고는 했지만 고향을 떠나는 것도 싫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규준(전주시 평화동·78) 할아버지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인데 이 나이에 일을 하게 돼서 기쁘다"며 "집에만 있으면 할머니와 자꾸 다투기만 하는데, 일거리 센터에 나오면 일을 하며 건강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리수마을 이성강 관장은 "보리수마



보리수마을에서는 사찰에서 사용되는 종이 영가웃, 예수재 용품 등을 만들기도 한다.

마을은 현재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의 후원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어르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중심으로 육성한 덕분에 지금과 같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어르신 일거리 센터가 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답했다.

이성강 관장은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해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업체들의 참여도 확대해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 과 목	교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양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 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 교육원

영 남 교 육 원 055-543-3155 부 산 교 육 원 051-441-0111 울 산 교 육 원 052-260-1037
호 남 교 육 원 063-254-5529 지 리 산 연 수 원 063-635-5112 제 주 교 육 원 064-755-7588
대 구 교 육 원 053-566-1116 해 운 대 교 육 원 051-757-9990 충 청 북 부 교 육 원 043-263-9966
광 주 교 육 원 062-672-5432 경 남 서 부 교 육 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교·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한,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방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